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최형성(Hyung Sung Cho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ausal 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s temperament, and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Participants were 404 Korean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Korea.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Warmth-Acceptance, social support, and child's temperament. On the other h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mother'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and mother's str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Child's tempera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스트레스(stres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아동의 기질(child temperament).

I. 서 론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 및 행동 그리고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생태학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특성 변인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들을 참가하여 양육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Bronfenbrenner, 1977; Shumow & Lomax, 2002; Suchman & Luthar, 2001).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

¹⁾ 혜천대학 아동컴퓨터보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Computer Education, Hyechon College, Daejon 307-715, Korea E-mail : hyungsung@hanmail.net

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Johnston & Mash, 1989;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믿음은 양육행동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Coleman & Karraker, 2003), 부모의 양육행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효능감의 개인차에 의한 결과이다(Coleman & Karraker, 1997).

많은 학자들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 및 훈육스타일을 예측케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Desjardin, 2003;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Sanders & Woolley, 2005; Shumow & Lomax, 2002). 학업에 관한 양육효능감의 경우 아동의 학업을 돋는 부모의 양육행동, 예를 들면 학교 참여 행동, 읽기와 수학 공부를 돋는 행동, 아동과 함께 교육적 활동 참여 등을 예측케 한다(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이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습득,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노력,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자녀교육 노력,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Desjardin, 2003).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상호작용적인 반응을 예측케하는 강력한 요

인으로써,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며 반응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 자녀를 모니터링하는 양육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Bogenschnieder, Small, & Tsay, 1997; Coleman & Karraker, 1997; Desjardin, 2003;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반면 낮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 및 수동적·소극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대처, 양육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Webster-Stratton, 2000).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거부적 양육행동이나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과 관련된다(Suchman & Luthar, 2001). 부모-자녀 관계의 불만족스러움이나,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불만족스러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의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뿐 아니라 때때로 어머니의 약물중독의 현상까지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Harmer, Sanderson, & Mertin, 1999; Levy & Rutter, 1992; Suchman & Luthar, 2001).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에게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Crinic & Greenberg, 1990; Cri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Kotchick, Forehand, Brody, Armistead,

Simon, & Clark,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그리고 명령이나 비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Webster-Stratton, 1988) 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양육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 의해 연구되어 온 사회적 지원은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Eiden, Teti, & Corns, 1995; Unger & Wandersman, 1988). 주위사람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많이 받은 어머니들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아동의 기질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Belsky, 1984).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받게 되고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한다(Crokenberg & Acredolo,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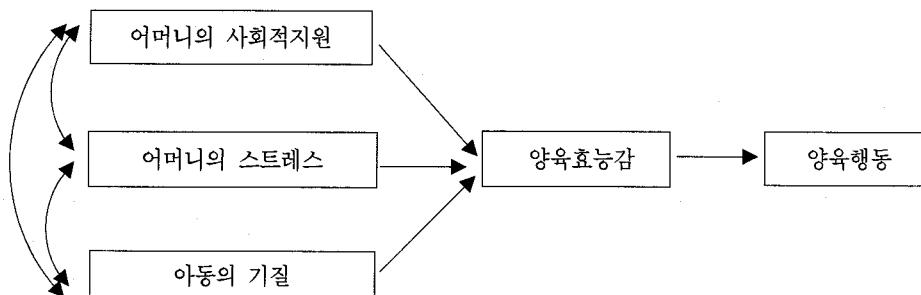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변인들도 양육효능감에 의해 매개된다 는 최근 연구들에 의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Cutrona & Troutman, 1986;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Teti와 Gelfand(1991)는 사회적 지원 및 부부의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사회적 지원 및 부부의 지원은 어머니의 유능한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 지원 및 부부의 지원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이 유능한 양육행동을 예언하고 있음도 함께 보고하였다. Leerkes와 Crokenberg(2002)도 역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서적 각성 활동 동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예측케 하는 변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 Coleman과 Karraker (1997)는 연구 고찰을 통하여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예를 들면 우울, 가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경향을 언급하였다. Cutrona 와 Troutman(1986)은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Donovan과 Leavitt(1985)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사회적인 지원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 그리고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할 가능성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을 통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현실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 (Desjardin, 2003).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자녀양육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최형성, 2005). 그리고 어머니가 여전히 아동 양육의 일차 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Mash & Johnston, 1983; Elder, Eccles, Ardet, & Lord, 1995),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404쌍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1세 47%, 12세 36%이었다. 여아가 53%였고, 형제 수는 2명인 경우가 69%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인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55%가 전업주부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250만원에서 299만원사이(17%)가 그 다음 순위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5~.86, 하위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71~.84, 그리고 타당도는 .65~.86이었음이 보고 된 바 있다(최형성·정옥분, 2001).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4, 하위 척도의 신뢰

도는 .86, .74, .80, .80,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 중 ‘어머니는 나에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온정·수용, 거부·제제, 허용·방임 등 3 차원, 80문항이다. 본 연구는 요인 부하량과 각 차원마다의 동일한 문항 수를 위하여 박영애(1995)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차원마다 요인 부하량이 높은 12문항씩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차원의 총 점수는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점수는 각 차원별로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역코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점수가 높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71,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86, .80,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현희(1994)가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20문항, 4점 척도, 5개 하위요인 ‘건강문제’, ‘남편의 직업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으로 재구성된 척도는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8, .83, .77, .80, .67이었다.

4)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의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주위의 도움은 .91, 남편의 협력은 .93,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이 사용한 아동의 기질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을 ‘내 아이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차원별 기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의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철퇴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 차원에 해당되는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함으로써 기질에 대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는 34점에서 136점까지이다. 본 척도는 일반적 활동 수준(7문항), 접근-철퇴성(6문항), 융통-경직성(6문항), 기분(7문항), 주의 집중성(5문항), 지속성(3문항) 등 6개의 기질 차원, 34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기질 차원의 신뢰도는 .79, .68, .55, .79, .53, .73,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500명과 그 어머니 500명을 쌍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456명의 설문지 중 부

실한 응답을 한 52명을 제외한 404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문항양호도 검사 및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요인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예비평가로 웨도(또는 편포도, skewness)와 첨도(또는 용도, kurtosis)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

〈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404)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온정·수용	2.25	.51
거부·제재	1.08	.52
허용·방임	.97	.4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3.73	.44
어머니의 스트레스	2.04	.68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3.71	.59
아동의 기질	2.77	.25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고 유의한 정적상관($r=.32, p<.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17, p<.001$),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r=-.1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r=-.15, r=-.16,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

〈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N=404)

	1	2	3	4	5	6
1. 온정·수용						
2. 거부·제재		-.31***				
3. 허용·방임	.02		.12*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32***		-.15**	-.14**		
5. 어머니의 스트레스	-.13**		.06	.04		
6.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17***		-.06	-.08		
7. 아동의 기질	.06		-.16**	-.21***		
				.35***		
				.36***		
						-.17***

* $p<.05$ ** $p<.01$ *** $p<.001$

〈표 3〉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에서 나타난 합치도 지수

	χ^2	df	p	Q	GFI	AGFI	NFI	NNFI	RMR
온정 · 수용	7.17	3	.067	2.39	.993	.965	.980	.959	.000
거부 · 제재	6.91	3	.075	2.30	.993	.966	.978	.958	.005
허용 · 방임	13.35	3	.004	4.45	.987	.936	.959	.890	.005

과 가장 높고 유의한 부적 상관($r=-.21, p<.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r=-.14,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3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정 · 수용은 거부 · 제재와 매우 높고 유의한 부적 상관($r=-.31,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 제재는 허용 · 방임과 유의한 정적 상관($r=.1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66, r=.35, p<.001$)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3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r=-.20, r=-.22, r=-.17,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인과모형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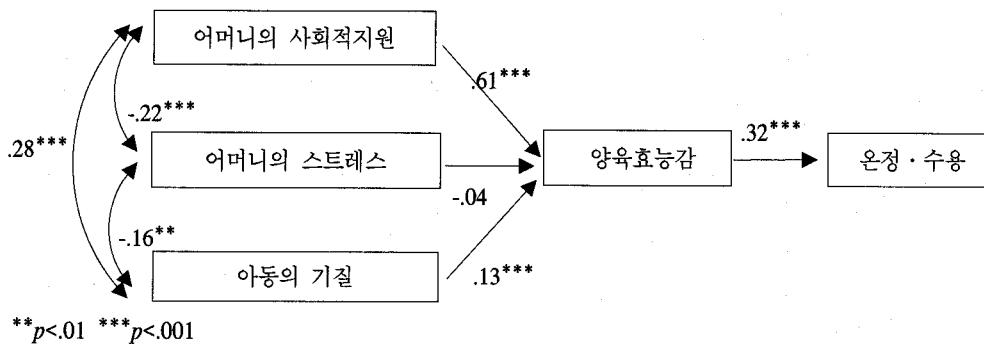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구조방정식의 기본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단 양육행동은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등 차원론적 접근방법을택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도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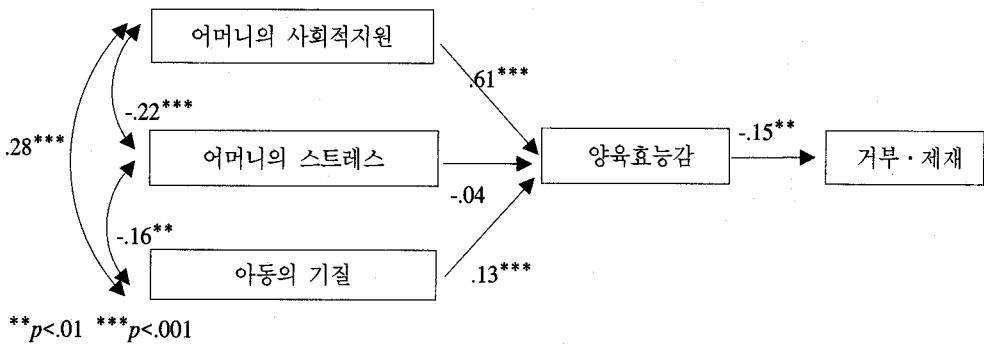
본 연구의 기본 모형에서 사용한 5개의 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의 모수추정치의 왜곡은 무시할 만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수는 404표본으로 안정된 결과를 줄 수 있는 표본수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대가능법을 사용해도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인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중요한 합치도 지수인 카이스퀘어(χ^2), GFI, AGFI, NFI, NNFI, RMR 값 모두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기본 양육행동 모형과 본 연구자료가 매우 잘 부합되는 모형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3).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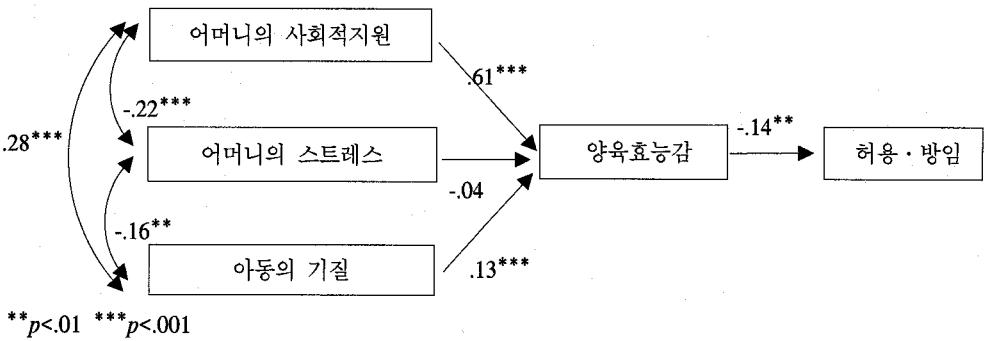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온정 · 수용적, 거부 · 제재적 및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에 매우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기질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유



〈그림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의 결과



〈그림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의 결과



〈그림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결과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는 매우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모형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 수정지표를 통해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표 4).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에서는 본 연구에

〈표 4〉 수정지표

양육행동	경 로	M.I.	Par change
거부·제재	아동의 기질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4.42	-.215
허용·방임	아동의 기질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11.41	-.273

〈표 5〉 수정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합치도 지수

	χ^2	df	p	Q	GFI	AGFI	NFI	NNFI	RMR
거부·제재	1.993	2	.369	.996	.998	.985	.994	1.000	.005
허용·방임	.529	2	.768	.264	.999	.996	.998	1.024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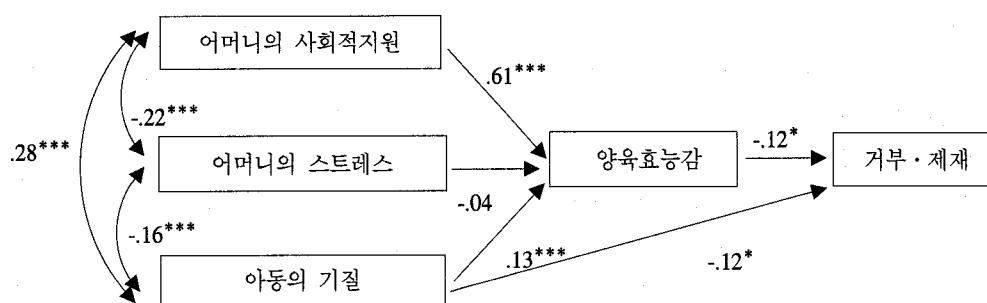
서 설정한 모형이외의 수정지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이외에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수정지표에 의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에 아동의 기질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그리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첨가하여 합치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수정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중요합치도 지수인 카이스퀘어(χ^2), GFI, AGFI, NFI, NNFI, RMR 값이 약간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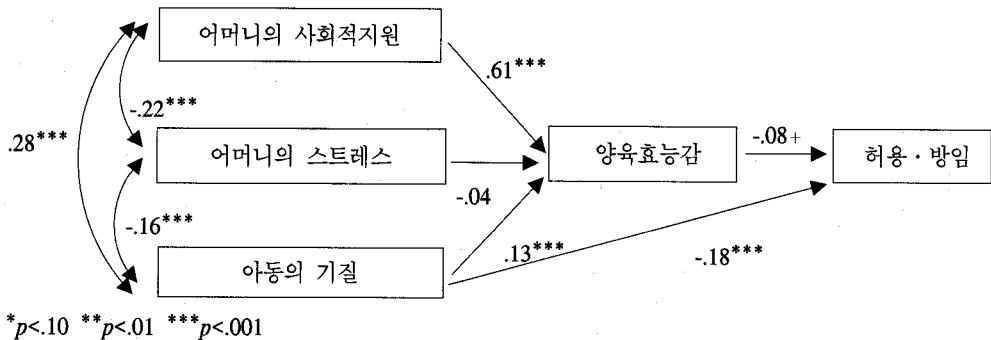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인과 모형은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형들에서도 양육효능감이 각 독립변인들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5〉,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의 기질의 영향이 추가됨으로



* $p<.05$ ** $p<.01$ *** $p<.001$

〈그림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거부·제재 양육행동 수정모형의 결과



〈그림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허용·방임 양육행동 수정모형의 결과

로써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SMC)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은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각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10.2%,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은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각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3.4%,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정 모형은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각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5.0%에 이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의 기질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과 가장 높고 유의한 부적 상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각 양육행동 모형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비처벌적이고 온정적이며,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Bogenschnieder와 Small, Tsay (1997), Coleman과 Karraker(1997), Desjardin(2003), Gondoli와 Silverberg(1997), Leerkes와 Crokenberg (2002), Teti와 Gelfand(1991), Wells-Parker와 Miller, Topping(199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양육효능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 강압적인, 수동적, 소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과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고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아동

극적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Coleman과 Karraker(1997), Gondoli와 Silverberg(1997), Teti와 Gelfand(1991), Wells-Parker와 Miller, Topping(199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효능감 신장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rookman-Frazee, 2004; Dempsey & Dunst, 2004; Desjardin, 2003; Gross, Fogg, & Truker, 1995; Martin & Sanders, 2003). 이러한 현 추세는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에 관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이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정적 상관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순한 기질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1986), Mash와 Johnston(1983),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부적 상관은 두 변인간의 의미있는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Kotchick와 동료(1997), Levy-Shiff와 동료(1998), Dumka와 동료(1996), Scheel과 Reckmann(1998)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높은 긍정적, 부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기질은 거부·제재와 허

용·방임적 양육행동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차 이를 보이는 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연구들이 더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연구문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본 모형으로 설정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많아지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고 Coleman과 Karraker(1997),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Leerkes와 Crokenberg(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1986),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한다고 Donovan과 Leavitt(1985)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수정 모형을 살펴본 결과 이 두 모형에서만 아동의 기질의 직접적인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과 달리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들이 보고된 바 없으므로 직접적인 논의는 어렵다. 다만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 (1986)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등의 바람직한 행동과 달리 어머니의 우울이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영향력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과 달리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자아형성과 심리적 안녕뿐 아니라 양육행동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에서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변인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양육과 관련된 제반의 변인들 특히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에 기초하였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가난이나 사회적 지원 부족 등과 같이 양육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부모들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일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차후에는 장애아, 자폐아, 비행아와 어머니, 그리고 저연령 아동, 청소년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신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

- 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현희(199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111-123.
-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Bronfenbrenner, U.(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rookman-Frazee, L.(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6(4), 195-213.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ri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i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onenberg, S., & Acredolo, C.(1983). Infant temperament ratings; a function of infants, or mothers, or bot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1-72.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mpsey, L., & Dunst, C. J.(2004). Helping styles and parent empowerment in families with a young child with s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10), 40-51.
- Desjardin, J. L.(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novan,, W. L., & Leavitt, L. A.(1985). S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6, 594-603.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ccles, J., & Harold, R.(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Eiden, L. D., Teti, D. M., & Corns, K. M.(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 Elder, G., Eccles, J., Ardet, M., & Lord, S.(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ross, D., Fogg, L., & Tuker, S.(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 Harmer, A. L. M., Sanderson, J.,& Mertin, P.(1999). Influence of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on psychological functional,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for mothers recovering from addiction. *Child Abuse and Neglect, 23*, 421-433.
- Hoover-Dempsey, K., Bassler, O., & Brissie, J.(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85*, 287-294.
- Hoover-Dempsey, K., & Sandler, H.(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erkes, E. M., & Crokernberg, S. C.(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vy, S. J., & Rutter, E.(1992). *Children of drug abusers*. New York : Lexington.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rtin. A. J., & Sanders, M. S.(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Sanders, M. R., & Woolley, M.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umow, L., & Lomax, R.(2002). Parental efficacy :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uchman, N. E., & Luthar, S. S.(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bster-Stratton, C.(2000). *The incredible years training serie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2000.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0월 31일 채택